

# 한국사람이 양식을 먹는다?

회사에서는 정보시스템 업무 활용 초기에, 사용할 업무도 적고 부정적인 인식도 적지 않았고 컴퓨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서 단독으로 도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당시 KIST, KICO, KCC등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여 단순한 급여, 인사, 자재, 영업 업무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계의 성능이 지금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프로그램을 종이에 작성하여 펀치실에 의뢰하고 펀치된 자료를 기계실에 작업 지시서와 함께 등록하고 수정 작업을 위하여 몇대 안되는 펀치기에서 카드를 고치고 하는 작업 환경이 정보업무 종사자들이 비정기적으로 모이게 되고 함께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였다. 지금에 비하면 이러한 작업 환경이 비능률 적이고 생산성도 낮았지만 전문인들의 만남과 인간관계 형성에 커다란 의미를 남겨서 지금도 당사의 동료 선배님들과의 여러 형태로 끈끈이 이어지고 있어 국내 정보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실무적인 면에서는 자료의 부족, 생소한 용어의 어려움 등으로 불필요하게 밤을 새우며 씨름하던 기억이 생생하지만 근자에는 많은 서적들이 번역서, 원서등 각종 세미나들이 있어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배우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환경



金弘基  
두산기술원 수석연구원

이 되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다양해 지면서 새로운 장비, 시스템들이 홍수처럼 정보부문 시장에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필요부문의 소화에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외부 교육, 발표회등에 가능한 참석하고 있다.

학계, 업계의 선배님들과 새로이 국내외에서 연구하여 열심히 이런 사람에게 전파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국가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움은 너무 외국어 사용 빈도가 많다는 것이다. 원고 독촉을 받아 오늘 쓰고 있는데 마침 한글날이라 느낌이 다르다. 심한 경우는 직원들의 우스개 소리로 '토씨만 한국말이네요'한다.

물론 표현의 어려움도 있어 원어로 전하고자 하지만 우리 스스로 무난히 쉽게 표현하여 하나라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인은 직원들이 현업 사용자 교육시에 전문용어를 피하고 한글도 쉽게 표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모두 가능한 쉬운 우리말로 표현을 하여 주시고 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후 정부에 건의하여 2000년대 정보의 생활화 방향에 좀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합시다.